

민아: 어, 지훈 씨 병원에는 무슨 일로 왔어요? 어디 아프세요?

지훈: 민아 씨, 잘 지냈어요? 네.. 몸살이 난 것 같아서 왔어요.

민아: 그렇군요. 저야 아주 잘 지냈죠. 저는 여기에 왜 왔는지 안 물어보세요? 하하하

지훈: 아 깜빡했네요 하하.. 민아 씨는 무슨 일로 왔어요?

민아: 저는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파서 왔어요.

지훈: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?

민아: 글썽요.. 뭐 요즘 회사에 일이 많긴 하지만...그래도 걱정이 되네요..

간호사: 허민아 님 들어오세요.

의사: 안녕하세요,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?

민아: 아, 제가 요즘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자주 아프고 해서요.

의사: 어디... 한 번 봅시다.

민아: 최근 2~3 일 사이에 심해졌어요.

의사: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고 환자분이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

민아: 아 네... 제가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..

의사: 스트레스 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제가 3 일치 약을 처방해 드릴테니 드셔보세요.

민아: 네, 감사합니다.

의사: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점심드시고 가볍게 산책이나 운동도 해 보시구요. 그런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도 장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

민아: 네,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

간호사: 오지훈 씨, 들어오세요.

의사: 어서오세요.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

지훈: 저 몸살이 난 것 같아서요..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도 있는 것 같아요.

의사: 자, 그럼 어디 한 번 봅시다.

의사: 몸살이 심하게 나셨네요. 집에서 한 며칠 꼭 쉬셔야겠습니다.

지훈: 아.. 몸살이 그냥 몸살이 아니였네요..하하

의사: 일주일치 약을 처방해 드릴테니 집에서 쉬시고 가급적 몸을 쓰는 일은 삼가하시구요.

지훈: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

의사: 그럼 몸조리 잘 하세요.

지훈: 민아 씨 처방전 챙겼어요?

민아: 네, 챙겼어요. 진찰은 잘 받았어요?

지훈: 네.. 저는 약을 일주일치나 처방 받았어요. 민아 씨는요?

민아: 저는 3 일치요.. 우리 약 잘 챙겨먹고 빨리 나아요! 아픈거 너무 싫어요..

지훈: 저도요.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라 걱정이네요.

민아: 우리 어서 약국으로 가요! 약 받으러 가야죠.

지훈: 어서 가요. 사람들 줄 서기 전에!!